

정통부

# IT 중소기업 인프라 구축에 총력

## IT 전문협의회 발족 ... 업종별 맞춤형 지원

올 여름장마가 한창이던 지난 7월 둘째 주(4~8) 정통부 각 층별 회의실은 후덥지근한 열기로 가득 찼다. 적게는 5개 기업, 많게는 10여개 중소기업CEO들이 그룹별로 모여 각 정책 담당팀(과)장들과 열띤 회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

이 주간동안 모인 그룹들은 휴대폰 RF부품, LAN장비/부품, 온라인게임, VoIP/영상전화기, LMR무선기기산업, BPM 분야로서 그룹별로 마련된 회의실에서는 소속분야 시장현황 정보를 교환하고 공통어로 해소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의 열띤 모습들이었다.

이 그룹들은 IT업종별 전문협의회로, 지난해부터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IT중소기업활성화정책(IT SMERP)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최근 기업의 성공전략 키워드로 가치창조와 혁신이라는 단어가 있다. 가치창조란 경쟁사와는 다른 경험과 차별적인 만족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고객이 지불해야 할 거래비용을 창출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혁신이란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가치창조를 위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 또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이 원하는 가치충족을 저비용으로 달성해야 하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이 아닌 산업정책을 대상으로 가치창조와 혁신을 적용해 보면 정책의 공급자는 정부이고 수요자 또는 수혜자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통부는 과거 수년간 IT분야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정부정책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인들은 매년 똑같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며 갈수록 기업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매출감소로 인한 자금부

족, 고급인력부족, 시장정보 및 판로개척 역량부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자주 거론된다.

그간 정부도 이런 주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항상 우선순위로 정책방향을 두고 지원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매년 똑같은 애로가 반복될까?

보편적이며 일률적인 지원형태와 방식은 IT산업초기에는 적용이 가능했으나 최근의 IT산업은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기술의 라이프사이클 단축이 심화되면서 산업현장의 애로가 복잡다양하게 끊임없이 도출되고 있어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애로파악 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결국 모든 IT중소기업을 같은 잣대로 보고 수준별 애로해소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채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평분배 방식도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대상인 IT중소기업 전체 중 아주 일부만이 직접 지원형태로 혜택을 받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다수의 중소벤처기업은 정책수혜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2004년 새해벽두부터 정보통신정책국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관련과장 및 사무관 모두가 IT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해 총체적으로 현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성장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중앙 및 지방부처의 지원정책도 심도있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중소벤처기업관련 협회와도 수시로 Q&A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이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다.

2004년 4월21일 정통부에서 정책국장주재로 지식정보산

새로운 방식의 핵심내용은 IT 업종별 연관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을 그룹화(Focus Group)하여 공통의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별 특징에 맞는 업종별, 성장단계별 맞춤형정책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업과장(당시 중소벤처지원사업담당) 및 담당사무관들, 중소벤처기업, 경영컨설팅지원 및 공동구매 등 정통부의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위탁수행하고 있는 KOIVA(IT벤처기업연합회) 부회장 및 정부사업수행 실무팀장들이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책국장은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여 새로운 시스템으로 '중소기업 Network화 방안' 초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이 나중에 전문협의회의 이름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전신모델이었던 것이다.

초안의 내용은 중소기업들의 애로파악과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방식과 추진방식을 기존형태와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었다.

새로운 방식의 핵심내용은 IT 업종별 연관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을 그룹화(Focus Group)하여 공통의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별 특징에 맞는 업종별, 성장단계별 맞춤형정책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민간기업에서 고객맞춤화 전략은 현실적으로 많이 작용되고 있었지만 정부정책에 시도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만큼 본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들도 초기부터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을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또한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점점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초안내용에는 미국의 금속세공관련 중소기업 네트워크와 이탈리아 자동차 부품관련 중소제조업체 네트워크, 덴마크 중소기업 네트워크 등이 사례로 포함되어 있었고, 본격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에는 IT벤처기업연합회인 KOIVA를 참여시켜 중소기업인들이 기획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현실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초안은 우리나라 IT중소벤처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 IT중소기업 네트워크는 IT전문협의회(Focus Group)

로 명명되어 2004년 7월 중소기업경쟁력강화대책안으로 1차안을 선보이게 되었다.

IT전문협의회는 IT산업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구분된 업종에 소속시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PM)를 배치하였고, 각 업종별 담당과(팀)과 소속기업들이 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이끌도록 기획되었다.

즉 전문협의회란 IT산업을 기술, 시장, 상품별 중요성을 고려하여 휴대폰, 디스플레이, RFID 등 업종별로 구분하고, 분야별 동일 또는 유사 중소벤처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간합동의 직접적인 정책협의 네트워크이다. 전문협의회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소속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정책건의에 대해 정보수집을 하고 민관이 함께 해결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기록화하고 DB화하는 한편 매주 취합되어 정책국장은 물론 장관까지 보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애로별 후속조치 진행경과나 결과를 관련기업들이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토록 하였다.

아울러 전문협의회 안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경쟁관계이기도하고 협력대상이기도한 동료기업들과 시장 및 경쟁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생을 위한 전략적 제휴 또는 M&A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도록 하여 건전한 시장생태계 조성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전문협의회 운영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전문협의회 운영 계획속에는 IT산업에 분류되어 있는 2만여개의 중소벤처기업들의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기업의 경영현황을 파악하는 방대한 계획 또한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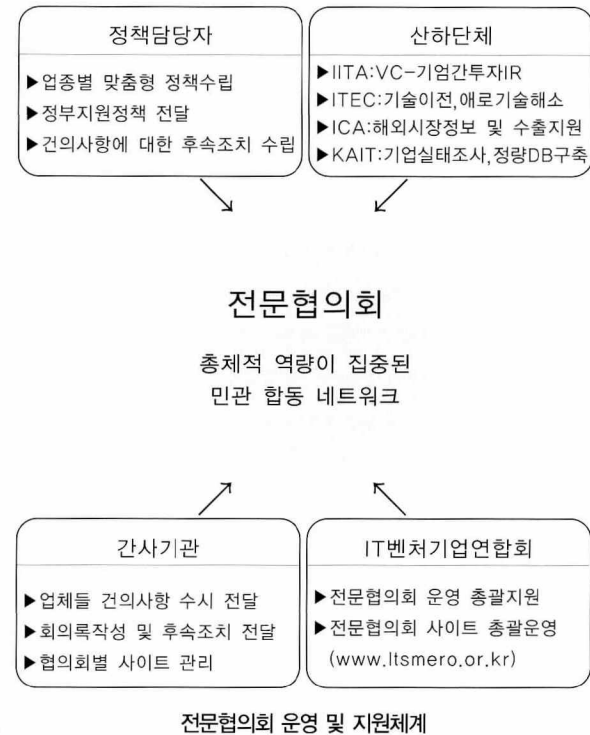
이는 그동안 IT분야 중소기업실태에 대한 통계가 부족하여 매년 정통부의 각 정책담당자들이 차년도 중소기업지원정책

을 수립하면서 공통적으로 겪어오고 있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2004년 11월에는 전문협의회 운영시스템에 중소기업 지원 체계가 보완된 2차안이 정통부가 마련한 중소기업활성화대책안(IT SMERP)중 하나로 포함되어 발표되었다.

전문협의회는 산하기관 및 협회에서 기존에 산별적으로 운영중이던 소규모 포럼, 분과, 협의회 등을 취합하고 신규 분야를 합쳐 총 76개 분야로 구성되었고, 분야별 리더기업을 중심으로 한 778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전문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통부내에 IT중소벤처대책반이라는 이름으로 특별지원팀을 신설하고 분야별 전문단체(정통부 출연기관 포함) 19개 기관이 관련협의회를 관리하는 간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정통부 출연기관인 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소프트웨어진흥원(KIPA),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와 민간투자기관들인 벤처캐피탈들을 전문협의회 지원네트워크에 포함시켰다.



2005년 2월 4일 드디어 19개 간사기관장들과 전문협의회 소속기업 CEO들이 모인 가운데 전문협의회출범식을 가졌다.

300여 중소벤처 CEO들이 함께 한 이 자리에서 진대재 장관은 다시 한번 전문협의회 운영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기업인들이 부르는 자리는 산업현장이든 연구실이든 어디든지 찾아가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기업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일일이 찾아가 기업인들의 손을 맞잡으며 현재의 어려운 현황과 위기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출범식에 따라 지원센터는 총괄사무국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IT벤처기업연합회(KOIVA)에 2005년 2월 21일 전문협의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식적인 업무시작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지원센터는 전문협의회 운영지원팀, DB관리팀, 경영지원팀, 조사통계팀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전문협의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간사기관들이 의구심으로 가졌던 문제가 기업인들에게도 발생하였다. 과거경험에 따라 전문협의회를 형식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회의에서도 피상적인 얘기만을 할뿐 적극적인 참여자세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한 달 정도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후 진대재 장관은 정책담당 과장 및 사무관들을 모두 불러 전문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협의회에서 나온 모든 회의결과를 담당자들이 직접 장관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적극적인 전문협의회 운영 자세를 요구하였다.

또한 정책과장과 중소벤처대책반장은 수시로 각 정책실무 과장 및 사무관들과 함께 건의된 애로분석과 대책마련을 협의하는 한편 실국별 사업들을 연계시켜 사안별 후속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거나 메일을 통해 정부의 추진의지를 확인시키고 전문협약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런 노력은 2회, 3회 회의를 거치면서 기업들 인식을 조금씩 바꾸는 가시적 효과를 가져왔다.

출범초기에 구성된 76개 협의회는 2005년 6월까지 운영결과를 토대로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협의회간 통합과 조정을 거쳐 51개로 재정비됐으며 분야별 선두기업의 참여

비중을 증대시켰다. 전문협의회 회의는 7월말 현재까지 총 111회를 가졌으며 여기서 총 176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이중 47건이 이미 처리되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관련기관들과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조달을 위해서도 전문협의회별 IR을 8회에 걸쳐 35개 기업을 지원하여 7월말 현재까지 5개 중소벤처기업이 총 148억의 투자성과를 얻었으며, 추가로 현재 3개 기업이 60억 가량 규모로 투자유치협상을 진행 중이다.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운영성과는 아직 미약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전문협의회 운영목적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중소벤처기업들이 처한 공통애로를 해소시켜 기업하기 좋은 사업 환경을 만들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기업간 과당경쟁을 예방하여 성장이 유망한 기업들에게 벤처캐피탈 자금이 활발하게 투자되고 결국 건강한 경영수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전문협의회는 우선 IT관련 모든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기업의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전후좌우 거래관계분석을 통해 가치기술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애로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던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실시간으로 입수되어 공개되는 IT분야별 시장동향과 경쟁환경 정보들은 정책담당자나 기업인들에게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수립되거나 기업들이 과거에 시행착오나 중복투자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이다. 이로써 IT 전분야에 걸쳐 분야별 애로에 대한 정책대응이 가능해졌으며 과거의 일률적인 정책이 아닌 맞춤형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투자자들은 이런 신뢰성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좀더 자세한 현황파악이 가능하여 과거보다 더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펼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정책 대상자인 기업들도 그동안 활동하고 있는 또는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사업성이 어떤지 개별기업의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불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지만 분야별 전문협의회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방향의 수정 및 확신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성과 중 다른 하나는 전문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정통부정책에 대해 기업들이 신뢰를 하게 된 것이다. 정통부 정책이 종류는 많고 다양하지만 기업들에게 도움이 안되는 현실성 없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산업현장에서 오늘 발생한 애로나 문제를 개별 기업 혼자가 아니라 동료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바로 내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체험한 것이었다.

이런 체험들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경험된다면 멀지 않아 정통부는 모든 개별 중소기업들 속에 하나의 사내지원부서처럼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며 동료로 인식될 것이다.

또한 전문협의회를 통해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지원방식이 업종별 공통애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동일한 예산규모를 갖고도 소수의 기업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업종별 맞춤형정책수립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정책품질이 향상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감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기업들이 믿고 따르는 정책 리더십(Governance)의 확보를 서두어 언급한 새로운 가치창조와 혁신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전문협의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전문협의회는 과거 정부주도의 정책 추진과정이지 아닌 기업주도로 스스로에 대한 정부정책수립과정에 기업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정부의 역할은 이런 정책추진과정들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원을 네트워크화하여 지원하고 기업들의 정책요구가 현실에 반드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정책 고객인 IT중소벤처기업들이 정책계획, 수립, 집행, 평가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시장과 정책이 괴리되지 않고 정책이 시장에서 평가 받고 평가가 다시 정책에 환류되는 시스템이 정착되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

글 | 나승식 과장(정보통신부)